대통령과 나

(요4:28~42)

28.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1.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32.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 거두는 자가 이미 삯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7.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9.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41.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대통령과 나>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요즘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박 근혜 씨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 인선작업을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발탁된 사람들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들 밝고 기뻐하는 표정들로 나와 있습니다.
수석대변인이 있고 비서관이 있고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종 분과의 위원들이 소개되는데, 우리가 TV를 통해 알게 된 음악감독 일을 하시는 박 칼린 씨도 있더군요.
청년분과에 소속된 인수위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대통령에 당선된 박 근혜 씨와 제 자신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봅니다.
대통령과 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박 칼린 씨도 무슨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박 칼린 씨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이시잖아요? 박 근혜 씨와 무슨 인척관계에 있을 리도 없고, 동창관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대중매체를 통해서 잘 알려지고 그 매체를 통해 소개되어진 박 칼린 씨를 박 근혜 씨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이들의 기쁨의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될 박 근혜 씨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순간에 박 근혜 씨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아, 이게 대단한 기쁨인 거예요.
인수위원장으로 제 2대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내신 분이 인선되었는데, 그분이 박 근혜 씨 마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제 18대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출범시키게 되는 산파 역할을 하는 인수위원장이 되었으니 기쁨이고 가문의 영광이지요.
그 기쁨과 영광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박 근혜 씨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박 근혜 씨 안에 그림자도 기척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박 근혜 씨 안에 그분들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게 바로 기쁨이고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죠.
영광스럽다는 게 무엇입니까?
박 근혜 씨 마음 안에서 내가 조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게 영화로운 조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박 근혜 씨 안에서 영화로운 조명을 받고 있으니까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자신은 박 근혜 씨 안에서 깜깜합니다, 아무런 빛이 없습니다.
박 근혜 씨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영광이 없는 거죠, 뭐!

자, 인생의 갈증의 본질이 뭡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하면 좀 더 좋은 분, 좀 더 멋진 분, 좀 더 멋진 존재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갈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생수라고 많이 비유가 되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생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도록 해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승천하시고 나서 그 자리로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도록 해주시는 것과 같은 일을 성령님께서 해주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 인생의 갈증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나'라고 하는 관계와 이 수가성 여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교해봅니다.
여기에 많은 공통점들이 생겨납니다.
수가성 여인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이고 우선적인 공통점입니다.
대통령 당선자인 박 근혜 씨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생수인 거예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박 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인수위원회는 해체됩니다.
혹 그분들이 다시 행정내각으로 발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임기는 5년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다는 것은 박 근혜 씨의 관계와 비교해볼 때, 박 근혜 씨는 자기가 구성하려고 하는 내각으로 사람을 발탁해서 5년 동안 함께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안에 품으신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발탁하시는 겁니다.

이게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비교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새로운 갈증이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서도 자신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증이 생깁니다.
자식이 둬서 자식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증이 생깁니다.
부모 안에 있는 딸로서 나를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또 수가라는 마을의 이웃들에게서 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참 좋은 여자야, 함께 살기에 여러 가지 유익한 좋은 품성을 가진 여자야' 이렇게 자기를 발견해야 갈증이 없어질 텐데…
멋진 남자구나! 그런데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이게 결혼 아닙니까?
이래야 갈증이 해소될 텐데 아무데서도 나를 발견할 가능성이 없었던 이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완전히 갈증이 해소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박 근혜 씨가 발탁한 수석대변인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문화일보의 칼럼니스트였는데 수석대변인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칼럼니스트를 하면서 송곳 같이 찌르는 말들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그게 다 갈증이라고 봐요, 그렇게까지 사람을 찔러대는 그런 말들을 그렇게 혹독할 정도로 해대는 것을 갈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터뷰하는 표정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르겠어요, 만족하는 겁니다, 대통령 당선자 박 근혜 씨 안에 자기가 있다는 게 얼마나 만족한지 몰라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과 이 수석대변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갈증입니다.
이상하지요? 완전히 갈증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갈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수석대변인에게 있어서 새로운 갈증은 이제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박 근혜 씨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통령으로 인상 지워지는 그 박 근혜 씨를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발견하기 위하여 자기가 박 근혜 씨와 국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수가성 여인의 새로운 갈증은 뭡니까?

자기의 물 마실 것도 다 잊어버리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의 그 삶,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이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보라!'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싶어 하는 갈증이 생겨납니다.
아! 이거 참으로 묘한 거예요.
박 근혜 씨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모든 인수위원들의 갈증은 뭐냐 하면, 모든 국민들이 박 근혜 씨를 좋은 대통령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박 근혜 대통령을 멋진 대통령으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의 갈증이 뭐냐 하면, 이제는 자기를 경멸하고 조롱하던 그 마을 사람 모두의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는 갈증을 이기지 못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왜 안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여인과 얘기하는 것을 듣고 여인이 마을로 들어갔을 때,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서로서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생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아버지가 발견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이걸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개라고 여겼던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그중에서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중에서도 수가 마을 전체 구성원들이 마음에서부터 배제시킨 루저 중에서도 루저인 이 여자가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주님이 피로를 회복하십니다.
그야말로 원기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물 마실 생각도 음식 드실 생각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여자가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 그 여자의 마음속에서 아버지하나님이 발견된 것

이 뭐 그리 기쁜 일일까요?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일까요?
지금 제자들은 나라의 독립을 꿈꾸고 있는 웅지를 품고 있는데, 기껏 사마리아, 이방사회에서 조차 배제되어버린 loser 중의 loser인 한 여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된다고 하는 사실이 주님에게 뭐 그리 대단한 기쁨이 됩니까?
아~ 이것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 전도!' 합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 전도훈련 프로그램, 성경공부 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어쩌든지 교인들이 전도 좀 해오기를 바랍니다.
허~ 다 소용 없어요.
지금 이 여자가 제자훈련 받은 게 아닙니다, 전도훈련 받은 게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단한 프로그램을 통과한 게 아닙니다.
예배 하나 제대로 된 거였습니다.
예배도 수천 명이 모여서 하는 대단한 예배가 아닙니다.
혼자서 드린 예배였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배였다는 겁니다.
왜 이게 예배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여인의 마음속에서 영 안에 있는 상태가 형성이 돼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여자가 '나'라는 의식을 찾을 수 있는 '너'가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라도 이 여자가 하나님을 '너'로 해서 '나'를 찾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충족시켜주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진리 안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기준에 맞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키스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 기준으로 볼

때 맞아하시느냐 틀려하시느냐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유일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맞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라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렇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키스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영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서 뛰어가는 겁니다.

이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전도를 강조하고 훈련을 시키고 많은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박사처럼 빠삭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 즐비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너'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 한분 안에서만이 나를 발견해야 되겠다는 '영 안에서'라는 마음이 생겨서,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까지 가신 그 주님과 연합해서 쫓아가는 진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로 예배드리는 교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지 않으면, 수가성 여인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른 사람 마음에서 발견되기를 바라는 그런 갈증을 느끼는 교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수가성 여인같이 못 될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아요, 뭐가 많습니까?
자, 보세요!
박 근혜 씨 마음 안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아 기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 안에서 발견되는 나를 통하여 내 마음이 기쁘고 있는 동안에, 결혼해서 기쁘고, 부모와 자식이 돼서 기쁘고, 목사님들 경우는 교인들 안에 내가 있고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니까, 이렇게 이 세상 안에서 그 누구에게 발견되는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기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를 기쁘게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설탕으로 범벅이 된 케익을 잔뜩 먹고 아주 품종이 우수하고 맛이 최고인 사과를 먹는 것과 같아요.
설탕으로 범벅이 된 케익을 먹고 사과를 먹을 때 사과 맛이 제대로 느껴질 리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으로 기쁜 다음에, 그것이 단 한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나를 발견함으로 기쁜 맛에 길이 들어있는 한, 하나님 안에 발견되는 나로 인해서 기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발견됨으로 인해 기쁘게 되는 이 상태를 씻어내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인수위원 된 게 아무리 기뻐도 그 기쁨이 몇 개월 안 가고, 내각에 발탁이 된다 해도 5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영생입니다.
그 영원에 비하면 5년이라는 건 인스턴트에 불과해요, 인스턴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누구 그 어떤 상황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전부 인스턴트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에 완전히 입맛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발견되고 싶은 사람이나 상황이 있잖아요? 돈이 많은 상황, 높아진 상황, 승진하는 상황, 취직하는 상황, 결혼하는 상황 …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맛을 다 씻어내는 겁니다.

마치 요리대회 때 심사위원들이 앞 사람의 요리를 먹고 다음 사람의 것을 맛볼 때 냉수로 입을 가셔서 뱉어버리고 그 맛을 씻어내고 다음 요리를 먹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를 발견하고 싶고, 나를 발견했을 때의 그 맛을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씻어내야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내게 큰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다른 갈증, 사람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발견되기를 바라는 갈증을 갖게 되고, 그 갈증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며 다시는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남은 여생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5년 임기 동안 정부의 내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가성 여인에게서처럼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수가 여인처럼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나를 찾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찾기에 목말라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